

# 물놀이·영화·음악... 한강엔 무더위 날려줄 행사 풍성 77개

##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진행  
7주년 맞아 프로그램 '다채'  
매주 토요일 밤에는 영화제

강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밤샘 걷기 프로그램 '한강 나이트워크 42K'에서부터 직접 만든 종이배로 한강을 건너는 '종이배 경주대회', 몬스터를 물총으로 물리치는 '물싸움축제'까지. 천만 시민을 설레게 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름 페스티벌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돌아왔다.

서울시는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11개 한강공원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축제 7년차를 맞아 77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중 74%(57개)가 무료로 진행된다. 플라스틱과 페트병으로 뗏목을 만들어 보는 '리사이클 뗏목 한강 건너기'(8월 10~11일, 뚝섬 음악분수 일대 및 수상), '한강원드피크닉'(8월 1~17일, 여의도 너른들판) 등 28개 프로그램이 첫선을 보인다.



종이배 경주대회 모습.

패들보트·카누·카약 등을 즐기는 '한강수상놀이대'(7월 26일~8월 18일, 뚝섬 수상훈련장), 한강에서 튜브를 탄 채 영화도 보고 야경도 감상하는 '시네마 풍당'(7월 19일~8월 16일 매주 금, 난지 물놀이장) 등 전통 인기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열대야를 날려줄 야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내 유일의 한강 풀코스 비경쟁 워킹 레이스 '한강나이트워크 42K'는 27일 오후 5시 여의도 녹음수광장에서 개최된다. 15km, 24km, 42km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전 예매를 통해 전체 정원 1만명이 마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오후 2시부터 취소료 일부가 풀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중곡예, 추억의 동춘서커스,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마임 등 8개의 공연이 펼쳐지는 '한강달빛서커스'(8월 15~17일, 반포세빛섬 앞 수변무대 일대)는 한강몽땅 속 또 다른 작은 축제다. 인형극, 풀피리 공연, 그림자 예술극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강별빛소극장'(8월 2~



한강다리밀영화제.

/서울시

10일, 매주 금·토, 뚝섬 자벌레 옆 잔디마당)도 준비됐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한강다리밀영화제'(7월 20일~8월 17일, 천호대교 남단 하부·청담대교 북단 하부·원효대교 남단 하부·망원 서울함공원)에서는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 기념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 받은 영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영화, 2019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기념 봉준호 감독 영화 등이 상영된다. '다리밀헌책방축제'(8월 1~18일, 여

의도 마포대교 하부)는 12만권이 넘는 헌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다. 책과 여름, 한강을 주제로 유튜브와 시민이 함께 곡을 만드는 '차곡차곡'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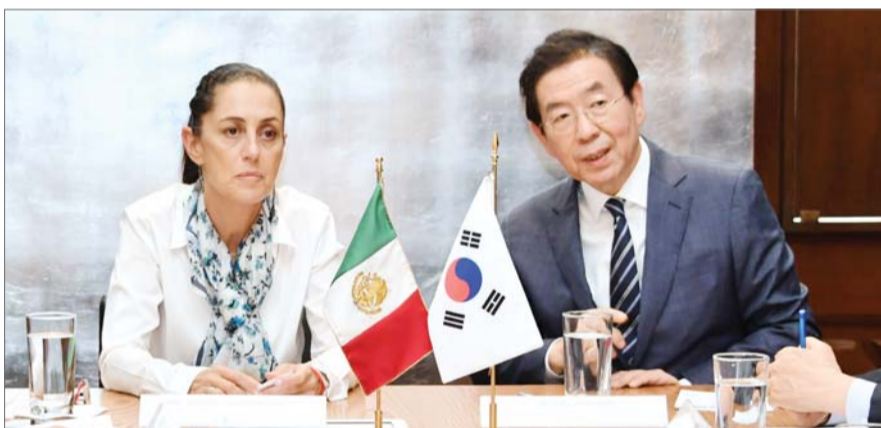
8월 15일 광복절에는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 D-50일을 맞아 잠수교 위에서 '잠수교 문화난장-체전야, 몽땅 같이 놀자'가 열린다. 약 100m 길이의 에어바운스 체험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공식 마스코트 포토존, 전국체전 특별 사진전, 성공기원 이벤트 등 다양한 부업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강몽땅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2013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매년 약 천만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다녀가는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여름 먼 곳으로 피서를 떠나기 어려운 시민들은 물놀이, 음악, 영화, 서커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는 한강몽땅 축제에서 소풍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멕시코시티, '전략적 호혜관계'로 격상

### 호혜협력 강화 합의서 체결 도시재생·교통 등 교류 확대

서울시가 멕시코시티와 유지해온 우호 관계를 한 단계 높여 글로벌 전략우호지인 중남미 지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시청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시장과 만나 '서울시-멕시코시티 간 전략적 호혜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 도시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와 중남미 대륙을 대표하는 메가시티로서 공통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그동안 문화행사 개최, 국제기구 사무소 개소 협력 등에 한 정태었던 협력 분야를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치안, 상하수도, 교통문제 해결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와 멕시코시티는 지난 1992년 자매결연을 맺고 2010년 분야별 협력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시청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시티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시장은 멕시코 시티 최초의 민선 여성 시장으로서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환경 전문가다. '차폴테펙 숲' 재건과 대기오염 30% 감축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이날 합의서 체결 전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박 시장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디자인 등 서울시가 강점을 지닌 분야의 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멕시코시티와 협력을 약속했다. 양 도시 시장은 MOU 체결 이후엔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차기 총회(2020년)의 멕시코 시티 개최를 공식 선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한-멕시코 교역 규모에 비해 서울시와 멕시코시티 간 도시 교류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전략적 호혜 관계로의 관계 격상 합의가 양 도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내달 오픈 롯데몰 수지, 지역 일자리 창출

### 채용박람회 개최... 지역 상생 앞장

롯데몰 수지는 박람회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해 지역 상생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오픈을 앞둔 롯데몰 수지가 18일 용인시청 1층 로비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몰 수지가 오픈하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는 총 2000여개로 예상된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롯데 계열사는 물론 입점 파트너사 등 총 40여 업체가 참가하여 채용에 나선다. 또 채용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참여기업 부스별로 채용 담당자들이 상주하여 채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 업체와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성복 롯데몰 수지 점장은 "이번 채용 박람회를 통해 많은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용인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몰 수지는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북동 일대에 위치하며 신분당선 성북역과 연결돼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롯데몰 수지는 쇼핑몰과 함께 마트, 시네마 등 쇼핑, 여가 시설을 선보이며 수도권 새로운 몰링 명소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경기도, 182억 투입 '디지털 심장' 만든다... 데이터 센터 추진

2022년까지 수원 일대에 센터 구축 하는 내용의 '경기도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안'을 확정했다. 경기도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IDC)를 새로 구축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수원 호매실동에 위치한 경기도건설본부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지상 3층, 연면적 3,60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축

하는 내용의 '경기도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안'을 확정했다.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경기도청 전산실과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1층에는 통합관제실과 사무실, 2층은 서버실, 3층은 디지털 교육장 등이 들어서며 소요예산은 182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경기도의회 승인과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기본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해 2022년까지 데이터센터 설치를 완료한다. 도가 독립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지난 2일 파주 저장창고에서 양파를 수매하는 모습

/경기도

## 경기도 접경지역 軍급식 농산물 첫 수매

경기도는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의 군급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친환경 농가가 생산한 양파와 감자를 수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양파 수매는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됐으며, 시군출하회 단위로 수매를 진행하고, 2주 정도 양파 수매를 진행한 뒤 곧바로 감

자 수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매는 흉수출하를 방지하고 군부대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 위해 저온저장 창고에 보관 후, 전량 접경지역 주둔 군부대 식자재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양파는 전처리 실시 후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